

광주·전남 때 이른 '말벌 공포'

빨라진 폭염에 한달 일찍 극성 일사·열사병 환자도 2배 급증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8, 9월 극성을 부리던 벌로 인한 피해가 한달가량 앞서 찾아왔다. 이때문에 벌에 쏘이는 사례는 물론, 벌집 퇴치 민원도 급증했다. 또 7월 중 폭염으로 인한 일사·열사병 환자도 크게 늘었다.

▷벌들의 습격=주로 8~9월 사이에 대거 출몰하던 말벌이 앞당겨진 무더위로 인해 한달이나 일찍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와 벌집을 퇴치해 달라는 구조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무등산을 오르던 송모(70)씨가 말벌에 머리를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9일에는 목포시 석현동의 한 상가에 말벌집이 있다는 신고가, 31일에는 목포시 죽교동의 한 대학 기숙사 4층 창문틀에 말벌 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99건으로 이는 ▲2006년 23건 ▲2007년 58건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2006년 7월 23건, 8월 94건, 9월 58건 ▲2007년 7월 58건, 8월 162건, 9월 171건 등 주로 8, 9월에 극성을 부리던 벌로 인한 피해가 한달이나 일찍 시작됐다는 것이다.

전남도 소방본부도 지난 1~7월 말

까지 벌집 제거 출동건수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건에 비해 32% 늘었다.

광주시 소방본부 구조구급팀 관계자는 "벌에 쏘이면 깨끗이 씻은 손으로 벌집을 빼준 후 피부는 절대로 문지르지 말고 얼음물에 적신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이 가신다"고 말했다.

▷폭염 환자도 급증=광주시와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일사·열사병 환자 75명이 발생해 이중 4명이 숨졌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여름철(6~8월) 내내 발생한 3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은 숫자다.

전남도는 이처럼 폭염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또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도와 시·군 합동으로 23개 반 267명의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무더위 쉼터'를 마련, 폭염대비 특수구급대를 편성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으로 마을단위 무더위 쉼터 4천920개소를 마련하고,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을 위해 폭염 도우미 1천98명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광평상기자 kps@kwangju.co.kr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8월 이후 극성을 부리던 벌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광산소방서 119구조대가 최근 광산구 일대에서 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광주광산소방서 제공>

영광 갯벌서 20대 여성 알몸 변사체

영광의 한 갯벌에서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25분께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앞 갯벌에서 양모(여·28·영광군 법성면)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선장 김모(42)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김씨는 해경에서 "입출항 신고하려고 가는데, 갯벌에 누군가 쓰러져 있어 가봤더니 20대대로 보이는 여성이

벌거벗은 채로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양씨는 벌거벗은 상태였으나 외상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바닷물이 빠진 상태에서 발견됐다.

또 전남 직장(법성면)에서 퇴근한 뒤 연락이 끊긴 양씨는 지난 1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됐었다. 해경은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본소에 양씨의 시신을 부검키로 하는 한편, 목격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목포=이상휴기자 ish@

나원침 (7573) 김종두



'사람 잡은' 멧돼지 사냥

강진서 실수로 엽총 발사...동료 숨져

유해동물 포획에 나섰던 50대 남성이 실수로 엽총을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했다.

강진경찰은 3일 엽총을 실수로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임모(4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일 밤 10시 30분께 멧돼지 포획에 나서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의 한 야

산에서 농로를 걸던 중에 뒤따라오던 나모(50)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엽총에 발사안전 장치를 하지 않은 채 들고가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12명 탄 승용차 음주운전 사고

트렁크 속 2명 튕겨 사망

트렁크 안의 3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탄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새벽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이 사고로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10대 2명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숨지고 나머지 10명이 모두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새벽 4시께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의 청소년야영장 앞 도로를 달리던 쏘나타(운전자 유모·여·23)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편 도로의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트렁크 안에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백모(18)군 등 10대 2명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숨지고, 운전자 유씨와 최모(여·23)씨, 이모(18)군 등 나머지 10명이 다쳤다. 고향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휴가차 고향에 와 만났다가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 유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6%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남스

촛불 진압 반발 농성 의경 구속영장 기각

'촛불시위 진압'에 반발해 외박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의경(의무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일 북부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길준(25)이

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경이 자진출석해 수사에 협조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2월 의경에 자원 입대한 이이경은 지난달 25일 외박을 나왔다가 복귀일이던 27일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진압과 전의경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한 뒤 5일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자수했다. /연남스

"여자친구 샤워 훔쳐봤다" 주먹질

○광주북부경찰은 3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모(2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집아 조사 중.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자친구 A(24)씨의 집앞 복도에서 귀가 중이던 이웃 주민 김모(32)씨의 목을 네 차례 때린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가 며칠 전 집 욕실에서 샤워하던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는 얘기를 여자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김씨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화가나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훔쳐보지 않았다고 말할 것에 화가 났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복도를 지나던 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충형 기자 golee@kwangju.co.kr

유조선·화물선 충돌 기름 유출 피해 확산

신안 우전해수욕장 일시 폐쇄

갯벌축제도 중단

유류 하역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유조선과 모래를 운반하는 화물선이 충돌, 기름이 유출돼 인근 해수욕장이 일시 폐쇄되고 갯벌축제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일 신안군청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2일 밤 11시45분께 신안군 임

자면 자은도 북방 4.5km 해상에서 500t급 유조선 여명7호와 1천600t급 화물선 금호5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명7호에 남아있던 병커C유류 7kl중 2kl 정도가 유출됐으며, 사고해역에는 폭 10m, 길이 100m 정도의 기름띠가 발생했다.

이 기름띠는 조류를 타고 사고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와 방축리, 임자면 분암도 등까지 확산됐다.

기름띠가 확산되자 이날 300여명의 피서객이 방문한 우전해수욕장은 입수가 전면 금지됐으며, 지난 1일부터 우전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섬 갯벌축제'도 모든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신안군은 직원 400여명, 주민 200

여명으로 긴급 방제단을 편성해 오전부터 흡착포를 이용해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특히 이날 우전해수욕장을 찾은 150여명의 관광객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기름 제거 작업을 돕고 있다.

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 신안군청 등은 합정 34척과 헬기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일펜스를 쳐 기름띠 확산을 막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조류때문에 기름 유막이 퍼져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4km 정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류 하역작업이 끝난 이후 사고여서 천만다행이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과 이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과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토 날과,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노 삶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비타민 A, C, E 및 보충
- 국제-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 국제-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 국제-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 국제-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코엔-에이스

